일 주 문



선본사 생전예수재

법성 갓바위 선본사 주지 스님은 생전예수재 및 관정이운 대법회를 7월 8일 오전 10시 유리광전에서 봉행한다.



조계사 유마경 강의

정운 동국대 선학과 강사 스님은 7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유마경〉 강의를 한다.



대관음사 동문신도회장 취임

남단아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제19대 총동문신도회장이 6월 24일 옥불보전 4층 대법당에서 취임했다.



대불련 여름캠프

이경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구례 화엄사에서 2017 여름캠프 '소.행.성'을 개최한다.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부탄 성지순례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회장 혜정)는 6월 15일부터 7일간 부탄을 순례했다. 방문단은 데쳉 포드랑 승가학교를 방문해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독려하고 부심도카종 사찰 등을 참배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사찰림硏, 한국JTS와 MOU



한국사찰림연구소(이사장 종수)와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6월 23일 서울 평화재단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관련기관 지원을 기반으로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의 복구를 위한 지원, 새로운 산림기술을 통한 북한산림의 육성 등 실효성 있는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수처작주(隨處作主)형 인재 양성소로 키울 터"

Interview

정홍섭 제9대 동명대학교 총장

4차 산업 맞는 인성 교육
'산학협력, 실용교육' 강화
"세계화 대세 아닌 현실"

"가는 곳 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인재를 배출하겠습니다. 기존 세계선센터를 중심으로 감성교육과 영성교육을 확대하고 인문학적 소양교육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부산 동명대 제9대 총장으로 정홍섭 박사〈사진〉가 취임했다. 동명대는 6월 23일 교내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홍섭 총장은 인간 교육을 기반으로 교육 혁신을 이뤄 낼 것을 강조했다.

정 총장은 "현대사회는 물질은 풍요로운 반면 급격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 빈부격차 확대 등 사람들의 소외감은 극대화하고 있다"며 "4차산업 시대를 맞아 개인과 사회의 행복 주안점은 바로 인성"이라고 강조했다.

동명대는 1977년 4월 초대 이사장 강석진 명예철학박사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을 설립하며 건학했다. 강석진 박사(1907~1984)는 한국경제의 선구자이면서 불교 만(卍)자에 담겨진 법리를 경영에 접목 할 정도로 불심이 깊었다.

정홍섭 총장은 2012년 6월 대만불광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불교특별위원회'에서 초대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등 불심이 깊다.

정 총장은 대학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실용교육 강화'를 내놓았다. 정 총장은 "산학협력을 통한 실용교육은 1차 대학구조 개혁평가 전국 185개 대학 중 35위, 지난 해 모 중앙지 평가 전국 39위 등 상위권 대학에 진입한 동명대의 자랑이다"며 "내년 2차 대학구조 개혁 평가에서 '자율형 대학'으로 인정받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실력있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제화에 발맞춘 대학으로 성장 할 것과 일반인을 위한 스마트에이징 성인교육을 선도 할 것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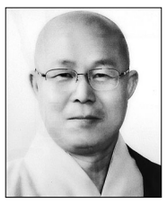
정 총장은 "세계화는 이제 대세가 아니라 현실이다"며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에게 한국의 우수함을 가르치고 재학생들의 해외 유학과 해외 취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변화가 특색인 미래 사회에는 평생 직업을 갖기 어려우며 스마트기기와 사물인터넷으로 나이든 성인들은 사회적응이 쉽지 않다. 단순한 교양교육이 아니라 스마트에이징을 가능하게 하는 성인교육도 구축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취임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총장 약력소개 △취임식사 △교기 전달 △취임사 △축사 및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부산여여선원 선원장 정여스님,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 및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장제국 동서대 총장 등 불교계 및 정계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제천불교 지역발전 이바지 앞장"

제20대 제천불교총연합회장 백운 스님



"제천불교총연합회는 그간 사부대중이 함께 사회활동을 펼쳐오는 데 진력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화합을 모토로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지역불교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제20대 제천불교총연합회장으로 취임한 백운 스님(대각사 회주 · 사진)은 연합회 운영기조로 '화합'과 '사회발전'을 내세웠다. 6월 29일 열린 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인 직무수행에 나선 스님은 회원 개개인을 회장으로 여겨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백운 스님은 "'바보 셋이 모이면 문수의 지혜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여럿이 지혜를 모을 때 더욱 큰 힘이 된다는 이 말은 구성원 간의 어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일깨워준다"면서 "개울이 시냇물을, 시냇물이 강물을,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 작지만 여러 생각을 모아 바르게 연합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운 스님은 1978년 장성 백양사서 동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1년 부산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87년 대각사 주지를 맡았으며, 제천불교총연합회 부회장 · 총무 · 재무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제천불교총연합회는 1982년 30여 사찰과 암자가 동참해 창립했다.

윤호섭 기자

"인욕통해 수행정진에 매진하자"

충담 선사 19주년 추모법회… 6월 27일 감로사서



충담당(沖澹堂) 원상(圓相) 대선사 열반 19주년 기념 추모법회 및 윤달맞이 조상천도 영산재가 6월 27일 경기도 가평 호명산 감로사서 봉행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비롯해 前 태고종 중앙종회 부의장 지홍 스님, 前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능해 스님, 이병재 가평적십자회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서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충담 대선사님의 불법수호 정신은 남달리 강하셨고, 일생동안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해 불교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감로사 주지 지성 스님도 인사말에서 "오늘은 19년 전 바로 이곳 도량서 태고종 승정이신 충담 대선사께서 소신공양(燒身供養)으로 화중생연(火中生蓮)을 피운 날"이라며 "국민 모든 불자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진주 연화사, 나눔의집 후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진주 연화사 불자들이 나눔의집을 찾았다.

6월 24일 연화사 불자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을 방문해 후원금 300만원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연화사 신도들이 진행하는 자비공양 차원에서 이뤄졌다. 연화사는 매년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자비공양을 실시하고 있다. 나눔의집은 후원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비로 사용키로 했다.

박아름 기자

생명나눔부산, 작은음악회 개최



(사)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는 6월 23일 부산 동래 대동병원에서 '제11회 환자 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 시작 전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는 직접 병실을 방문해 환우와 가족들에게 쾌유를 기원하고 떡과 다과를 전달했다. 각 병실에는 부본부장 자인 스님과 생명나눔 이사 혜우 스님, 생명나눔 홍보이사 혜산 스님 외 본부 이사들이 직접 환우들을 만나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호국불교조계종, 합동위령제 봉행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사단법인 한국호국불교조계종(종정 혜륜)은 6월 24일 총본산 칠곡 법전사에서 제40회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및 천안함 46용사 합동위령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종정 혜륜 스님과 해인사 용탑선원장 중천 스님 및 지역기관 단체장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혜륜 스님은 "위령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영혼들과 일체 고혼 애혼들을 위로하고 천도하여 이고득락 토록하며, 나아가 이 겨레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공 고 문

대한불교원효종은 오랜 기간 종권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바,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8월 25일자 2007라1580 결정에 의거 김윤철(향운) 스님을 임시종정으로 선임 결정하면서, 종단의 위의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윤철(향운)은 2009년 4월 13일자 첫 종회에서 종헌 · 종법을 위배하여 본인을 총무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상정하여 총무원장으로 선출하게 하고, 본인이 임시종정이 지위에서 자신을 총무원장으로 임명하고, 이후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헌을 개정하여 종단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윤철(향운)을 총무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서울고등법원(2015나7680)은 2015년 6월 4일 종단이 2009년 4월 13일경에 행한 김윤철(향운)에 대한 총무원장 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고등법원은 2017년 5월 12일 김윤철(향운)에 대한 2009년 4월 13일자 총무원장 임명이 무효인 이상 김윤철(향운)이 총무원장 지위에서 소집한 2013년 11월 28일자 종회결의도 무효이고, 따라서 위 종회에서 선출된 손영채가 총무원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판결(2016나1756)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김순석(용일), 이동수(성원) 외 16명은 대한불교원효종 종단 임시종정의 권한을 행사를 하는 김윤철(향운), 총무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손영채(우석)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하였고(2017카합10083), 울산지방법원은 2017년 5월 18일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김윤철의 임시종정, 손영채의 총무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한불교원효종의 종정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김동윤을 선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종정 직무대행자는 종단소속 사찰과 소속 종도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종무행정 질서를 재정비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종도증 내지는 승려증을 재교부하고자 공고합니다.

다 음

① 갱신범위 :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승려증 또는 종도증

②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진, 제적등본(타종단 소속이었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와 도첩, 자필이력서, 증빙자료 제출 (2009년부터 2017년 현재 분담금 및 승려 의무금 납부내력, 없으면 없는 대로 표시하시고 이유 부기하시기 바랍니다)

③ 접수기간 : **2017년 6월 12일 ~ 7월 31일까지 제출**

④ 접 수 처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30, 4층(역삼동, 우덕빌딩)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변호사 김동윤 (우편접수)

⑤ 문 의 처 : TEL 051)241-3002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직무대행자 변호사 김동윤